

스캔들에서 순복으로 사무엘하 11:1-6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빈이고 윌링던 교회의 목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의 삶에서 밋세바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모두 그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있었던 공개적인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커플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맨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더 깊은 문화적 측면의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정절, 사랑, 그리고 책임에 대해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개인의 권리, 결혼에 대한 기대, 또는 사랑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은 "인생은 짧다. 외도를 해라"라는 문구를 내건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회사를 만든 나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보다 훨씬 이전에, 성경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의 부끄럽고 아픈 부분을 자세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그에 따른 가슴 아픈 결과들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스캔들
2. 고난
3. 순복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과 밋세바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스캔들

다윗과 밋세바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시작 장면은 불안합니다. 성경이 있으면 저와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을 펴 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마도 저자는 나단이나 갓일 가능성이 높는데, 저자는 제가 강조하고 밀줄 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계절입니다. 이는 우기가 끝났고 왕들이 전쟁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였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은 다윗이 자신의 군사령관이자 조카를 보내 전쟁을 이끌게 하고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터로 이끄는 임무는 전쟁의 왕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는 전투의 최전선에 있었어야 했음에도 다윗은 백성을 이끌지 않고 집에 남아 빈둥거렸습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사무엘하 11:2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야기는 오후 늦게 다윗이 침상에서(아니면 그가 자고 있던 곳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윗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다윗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쟁의 왕이 되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백성과 함께 전투에 나가 싸워야 한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미묘한 나태함과 리더십 부족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사무엘하 10장 7절에서 다윗은 요압을 전투에 보냈습니니다, 다윗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나중에 요압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긴 했습니다. 이 행동은 다윗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입니다.

그보다 앞서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윗 왕은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맞이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맞이하는 부분은 지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나 지시, 지지 없이 이야기를 통해 사건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규에 관한 구절이라면 명령을 하거나 도덕적 지침이나 윤리적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권고가 함께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결코 여러 명의 첩과 아내를 권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사진입니다. 제 친구 집 뒷마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조각상은 친구 딸들이 선물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 왕이 이렇게 생겼다면, 밋세바 사건은 일어났을까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물집이 생겼을 때 아시죠? 바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고 계속 두면 굳은살이 박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계속해서 방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물집에서 굳은 살이 박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무뎠어진 마음으로 한 행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과 정당화였습니다!

우리는 3절에서 밋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는 짧은 서두와 함께 그녀의 이름을 처음 접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엘리암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우리아가 포함된 다윗의 용맹한 용사 명단에 기록된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가 아히도벨이 아버지인, 엘리암과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밋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하 15-17장에 다윗의 참모 중 한 명으로 등장하지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왕이 됩니다.

다윗과 밋세바 사이의 사건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신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이 행한 이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밋세바가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벌거벗고 목욕하며, 유혹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유혹하는 여자로 비난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윗이고, 4절에서 그녀가 생리로 인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집 안이나 집 안뜰 같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왕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대신,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고, 그 권력을 네 개의 동작, 즉 '보냈다'(Sent), '데려왔다'(Took), '왔다'(Came), '더불어 동침하다'(Lay)를 빠르게 연달아 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권력 남용이 있고, 취약하고 침묵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밋세바의 말을 끝까지 듣는 유일한 부분은 5절인데, 그녀가 다윗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입니다. 이야기 어디에도 밋세바를 탓하거나, 그녀가 비난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초점은 온전히 다윗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은 다윗이고, 밋세바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허락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그녀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은 다윗이며, 그는 그 권한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윗 왕은 다시 한번 요압을 보내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려는 계락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획의 일부는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아내가 임신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 있는 동안 아내와 함께 있기를 거부합니다. 이걸 왕이 할 일 같지 않나요?

다윗은 계획을 바꾸어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아내와 떨어져 지낸 남자를 술에 취하게 하면 다윗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너무 취해서 집에 갈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락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시도에서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내고, 그와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총실한 지휘관 요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보낸 편지에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하고 맹렬한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 후 우리아가 싸우다 죽도록 후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계락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아의 사형 선고문을 써서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건네준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늘 충성스러웠던 한 사람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편지를 전달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투와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말입니다.

사무엘하 11:25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하는 말은 "전쟁하다보면 전쟁의 희생자는 항상 있으니, 얼른 전쟁하러 다시 돌아가라!"

이것은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을 이제 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왕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연관된 상황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은 적어도 네 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 간음하지 말라

- 살인하지 말라
-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제게는 두 딸이 있는데, 만약 제 딸들이 공식적으로 네 가지 계명을 어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면 (개인으로 어긴 것은 제외하고요), 저는 딸들에게 수녀인 고모를 만나 보라고 권할 것입니다(가족 중 수녀가 있다고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제 딸들이 데려온 남자친구들을 제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든 비 기독교인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나가라!", "너는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성막과 언약궤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임 목사 티모시 켈러가 말했듯이, "다윗 이야기는 위대한 인물,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구세주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완전히 비극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 본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데려다줍니다. 비록 우리는 밀려나도 할 말이 없지만요... 죄로 얼룩진 우리의 피를 대신하는 그분의 깨끗하고 의로운 피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굳어있고 무감각했지만, 다행히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고난

다윗 왕과 밋세바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서 계속되지만, 이야기가 더 나아지기 전에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 장에서, 혹시 눈치채지 못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보내다" 또는 "보냈다"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말을 전하고 사람을 보냈다는 주제가 이제 12장 1절과 상충됩니다.

사무엘하 12: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는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와 바세바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유인 듯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을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양은 부자의 식탁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양 떼 중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사랑하는 어린 양을 훔쳐 저녁 식사로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그 남자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나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한 극단적인 감정에서 다른 극단적인 감정으로 옮겨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바세바에 대한 정욕과 갈망으로 가득 찼었다가 이젠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더 많은 여성을 정복할수록 진정한 남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올해 개봉한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1057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독신 여성과 함께 걷기'. 둘 다 축하받습니다.

왜 우리는 그 반대를 축하하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로라와 저는 결혼 전에 서로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제 삶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아주 쉽게 결정했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남자와 여자는 기회가 있어도 거절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누구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쉬우니까요,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기 훈련과 자제력을 갖추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다윗이 겪어야 할 결과들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전쟁, 살인, 배신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세바가 낳은 아이도 죽게 되는데, 이는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세기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주님 덕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의 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바라셨던 태도였으며,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간청한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다윗만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밋세바는 이야기 속에서 침묵하는데, 이는 이 사건이 두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이 다윗 왕의 책임임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밋세바는 여러모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27절에서 그녀는 남편을 위해 애통해하며 애도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그녀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녀의 첫사랑이었을 우리아를 위해 7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들과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텍사스의 목사인 보디 바우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성적인 죄에 빠졌고, 가장 강한 사람도 성적인 죄에 빠졌으며, 가장 경건한 사람도 성적인 죄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삼손보다 더 강하고, 다윗 왕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성적인 죄와 유혹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께 던지는 어떤 성적인 죄라도 기꺼이 짊어지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순복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윗은 결국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좋은 삶든 자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꺼이 순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심은 다윗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정확한 치료를 하기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는 데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가 진 행되면서 그들이 결국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 몬"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샬롬"을 의미하며 "평화"로 번역됩니다.

다윗 왕과 밋세바는 모두 다윗이 지은 죄로, 하나님께로부터 샬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25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디디아 인데, "여호와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됩니다. 한때 침묵하고 있던 희생자, 밋세바는 목소리가 크고 강한 왕비가 되 어 솔로몬 왕의 통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깊고 회복은 확실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가 언급될 정도입니다(마태복음 1:6).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선 하심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결론:

[사진] 고등학교 시절, 제 학교 책상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책상 위는 낙서로 가득했고 아래는 껌만 붙 어 있었습니다. 물론 책상을 버릴 수도 있지만, 구원도 할 수 있습니다. 책상을 닦고, 껌을 제거하고, 사 포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상은 원래의 용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팀 켈러가 말했듯이, 성경은 영웅들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영웅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이 자기 것이 아닌 여자를 빼앗고,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고, 왕이자 전사로서의 의 무를 저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참되고 더 위대한 영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뺏거나 취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편안함 속에 안주해 있을 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전 쟁터로 나가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 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참된 왕이시며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2. 밧세바처럼 어떻게 수치심에서 순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3. 삶에 지쳐 잊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